FSC 성가복지병원 소식지는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환경지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무료 밥집 Free Restaurant

장소 : [쉼터; Gaia] 1층
시간 : (화·목·토요일) 10:30~12:30
Where : The 1st floor of the shelter; Gaia
Time : Tue, The, Sat 10:30~12:30

이·미용 Free Haircut

장소 : [쉼터; Gaia] 지하 1층
시간 : 매주 토요일 10:00~13:00(다섯째 주 토요일 휴무)
Where : The 1st basement floor of the shelter; Gaia
Time : SAT 10:00~13:00(Fifth Saturday Closed)

샤워실 이용 Free Shower

장소 : [쉼터; Gaia] 지하1층
시간 : 매주 토요일 10:00~13:00(다섯째 주 토요일 휴무)
Where : The 1st basement floor of the shelter; Gaia
Time : SAT 10:00~13:00(Fifth Saturday Closed)

사랑 플러스 희망나눔
Love + Love = Hope

지금 후원금의 10%를 증액하면
어려운 이웃에게 더 큰 사랑과 희망을
선물해 드릴 수 있습니다.

증액 신청

Tel 02)940-1501 후원회
Email bobinhuwon502@hanmail.net

2023년
발행처·성가복지병원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녀회

성가복지병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무료병원

성가복지병원 기도문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 모두를 이 자리로 부르시어
성가복지병원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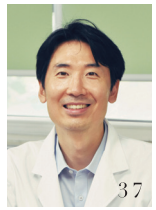
매일 만나는 주님의 모습은
저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영이 저희를 도우시어
낯선 모습 속에 가려졌던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발걸음과 손길, 눈빛과 말씨로
병드신 주님의 육신과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완성해 가는 사명으로
초대된 저희 공동체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서로 돌보고 격려하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성가복지병원을 찾아오시는 모든 이가
편안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맞이하고, 만나고, 돌보는 저희가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파괴되는 지구를 되살리는 생명의 표징이 되는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 성가복지병원의 주보이신 예수님, 마리아님, 요셉님!
• 당신들께 의탁하나이다.

Contents
2023



표지
—
물리치료실 환자 재활 운동

발행년 2023년 | **발행처** 성가복지병원
전화 02.940.1500(代)
주소 02733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91(하월곡동)
홈페이지 www.sgbokji.or.kr

성가복지병원 소개
04 설립목적 · 운영방침 · 사업안내 · 운영방법 · 입원 및 외래진료

여는 글
07 마음 읽어 내기_ 병원장 김 필리아 수녀

강생의 자리
12 외래환자 이야기_ 프레시오사 페르난데스(Presciosa Fernandez)
17 저 분은 주님이십니다_ 신학생 손민국(비오)
21 작은 사랑과 관심_ 신학생 강상훈(토마스 아퀴나스)

나눔의 기쁨
24 거룩한 주님의 종, 나의 삶_ 외래간호 봉사 이용희(잔 다르크)
28 특별한 나눔 이야기

감사의 마음
34 고맙습니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_ 목욕봉사자 최찬식(요셉)
37 미숙했던 자아도 함께_ 외래진료 봉사 이승훈
40 33주년 미사강론_ 임경명 신부
42 근속자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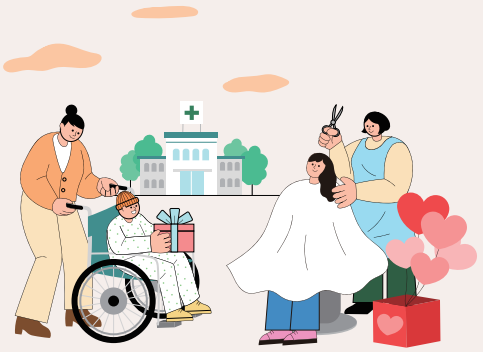
성가 소식
46 의료 사각지대를 채워 동그라미로, 성가복지병원
49 지역 생태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가는 성가복지병원
52 병원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녀회
성가복지병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병원

성가복지병원



설립 목적

성가복지병원은 성가소비녀회의 영성과 사명을 실현하는 의료복지 기관으로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무의무탁한 이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여 한 가족을 이루며, 그들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운영 방침

- 성가소비녀회의 영성을 실현하는 의료복지 기관으로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 모든 의료서비스 (입원, 외래 등)는 무료로 한다.
-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의 지원과 후원자,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운영된다.
- 사회심리적, 재활의 유기적 관계 형성과 전인 재활을 지향한다.

운영 현황

직원 현황 01	수도자,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 전기 및 기관 기사를 포함한 기본인력
자원봉사 활동 분야 02	• 의료지원(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실, 치위생사) • 이·미용/목욕/청소/세탁/재봉/안내/도서 • 영양과, 무료 밥집(설거지, 배식, 청소)
지원 03	정부 지원 없이 정기 및 비정기 회원의 후원과 수도회 지원 현물 후원으로 운영
병상수 04	• 1병동 - 6층(13실, 33병상) : 말기환자, 중증·경증환자
진료과목 05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피부과, 치과, 통증클리닉, 영상의학과

사업 안내

- 진료(외래, 입원)
- 말기 환자
- 타 기관 연계
- 무료 밥집(매주 화·목·토요일 점심)

입원 & 외래진료

■ 대상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행려환자, 무의무탁자,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건강보험료 체납자 및 상실자, 말기 환자

■ 서류 준비

의사 소견서, CD복사(CT 또는 MRI 마지막 촬영본), 영상의학판독보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수급자 증명서 1부(수급자의 경우)

■ 선별 방법

1. 외래환자의 경우
위의 진료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사업과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원환자의 경우
사회사업과 담당자와 전화 상담이나 병원 방문을 통해 환자상태,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상담한 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상담 시간

화~토요일 09:00~16:30 (일·월요일, 공휴일 휴무)
사회사업과 전화 02) 940-1561~3 / 팩스 02) 940-1535

■ 외래 진료시간

홈페이지(https://www.sgbokji.or.kr)에서 진료 일정을 출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빈 마음으로 말 없는 실천을 다짐하면서…

병원장_ **김 필리아 수녀**

이제는 2023년을 기억 속으로 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힘겹고 어려웠던 시기가 지나고, 마침내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허락된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눈으로만 나누었던 우리의 인사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환하게 미소를 건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표현을 다시금 나눌 수 있음에 가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아직 병원은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언젠가는….

성가복지병원은 고마운 이들이 함께해 준 하루하루의 시간이 쌓여 33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한없이 쏟아주는 정성으로 좀 더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병원으로, 환자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저희뿐만 아니라 병원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후원자님도 마음 한편 뿌듯하고, 병원 곳곳을 소중한 땀방울로 닦아주고, 의료 서비스를 도와주는 봉사자님도 흐뭇한 마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두의 마음이 모여야 비로소 성가복지병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닐는지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병원 내부적으로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2층 외래의 산부인과를 3층으로 이전하여 여성 환자들에게 안정된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고, 치과는 기존 산부인과 진료실의 벽체를 허물어 확장하면서 의료진의 동선을 단축하고, 환자들도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였던 동료 선생님의 넉넉한 마음밭에 서로가 잘 성장해 온 한 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상주하면서 병동과 외래 환자들이 재활을 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 은총에 감사드리며,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분의 따뜻한 정성으로 많은 환자가 치료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사람들은 자기를 돌본다고 하면 눈에 보이고 형체가 있는 몸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하고 시급한 대상은 마음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라는 글처럼 나는, 우리는 얼마나 마음 돌보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성가복지병원을 찾거나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지,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나누어 주는 마음과 미소로 대하고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존재에 대한 저와의 약속으로, 중단하지 않는 믿음의 날실과 이해라는 구슬을 꿰어놓은 씨실이 엮여 서로 바라보고, 마음을 쏟아주는 관심으로 살아갈 때 성가복지병원과 끈끈한 인연을 맺은 후원자님과 봉사자님을 마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끝마치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 자신부터 ‘마음 읽어 내기’를 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묻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며,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투사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표현할지? 숨결과 미소, 아름다움을 누구에게나 부드럽고 선한 모습으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성찰해 보는 한 해가 되기를 권유해 보면서 저 역시 다짐해 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눈이 보인다. 귀가 들린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그리 나쁘지 않다. 고맙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쥘 르나르의 글을 보면서 우리도 하루의 시작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잠에서 깨어났으면 합니다. 숫자로 나이를 가늠하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의 삶을 한 올 한 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새로운 사명으로 새롭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환자들과 직원들의 마음, 후원자와 봉사자의 '마음 읽어 내기'를 실천하는 성가복지병원의 모습을 소망하며 새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모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안배를 믿고 노력한다면 하느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가복지병원의 동반자가 되어 주신 모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강생(降生)의 자리

해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마태 5,3 -

외래 환자 이야기

프레시오사 페르난데스
(Presciosa Fernandez)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면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음식, 숙박, 교통비, 건강 의료비 등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사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은, 이곳 서울에서 저와 같은 이주노동자에게도 삶의 질을 높일 기회들이 주어지고, 또 자선을 행하는 여러 병원들로부터 무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가복지병원으로부터 저는 지난 십수 년간 고혈압에 대한 무료 진료상담과 치료 약을 제공받아왔습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성가복지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고, 이곳에서는 단 한 푼도 진료비를 받지 않고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직원분들은 모두 친절하고 다정하시며, 긍정적인 생기가 항상 이 병원 주위 환경에서부터 느껴집니다.

작년 2022년 6월 산부인과 검사를 통해 자궁 근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그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가복지병원에서는 수술을 위한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부천에 있는 성모병원을 소개해 주셨고,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행히도 면담이 잘 진행되어 수술비와 기타 병원비 모두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보험으로는 제한된 부분만 적용받을 수 있기에 병원의 관대함은 저와 같은 이주노동자에겐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불안함 속에 있었는데, 큰마음을 가지신 수녀님들께서 지속적인 격려와 기도와 축복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의 영혼을 들어 올려주셔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치러야 할 수술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수술은 다른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성가복지병원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의 친절과 환대, 그리고 계속해서

도움을 주심에 항상 오래도록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는 그의 충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도구들을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성가복지병원의 경영진분들과 의사 선생님들과 직원분들 그리고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어, 필요한 곳에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계속해서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과 영예와 찬미를 드립니다.

HOLY FAMILY WELFARE HOSPITAL

As a foreigner living and working in Seoul, Korea, it is not easy to deal with the daily cost of living, from the food, accommodation, transportation, health and medical expenses to name a few. Everyday, we face real-life struggles to make ends meet provide for our family. However, I feel so blessed that here in Seoul, even a migrant worker like me a is given a chance to experience quality of life and even free health care benefits from different charitable hospitals.

For more than a decade, Holy family Welfare Hospital has been giving me free consultations and maintainance medicines for my high blood pressure medication. Whenever, I feel sick, I would normally go to Holy Family Welfare Hospital for a check-up, and they have been generous in treating me without spending a penny. The doctors and all their admin staff are friendly, and kind, and a positive vibe is always felt in the hospital's environment and vicinity.

It was in June 2022 last year after my medical examination with the obstetrician - gynecologist (OBGY), that it was confirmed that I have myoma. The OBGY mentioned that it was non-life threatening. however, surgery was reguired due to its abnormal size. The Holy Family Welfar Hospital, unfortunately, was not fully equipped to perform the Surgery, hence they referred me to St. Mary Hospital in

Bucheon, They even recommended me to St. Mary's Hospital's social welfare to avail free medical expenses the said operation. I was lucky enough to pass the interview and had undergone the Surgery free of charge including miscellaneous hospital fees. Having limited medical insurance coverage, the hospital's generosity was truly a great help for migrants like me. I was so nervous back then but the continuous encouragement, prayers, and blessings from the big-hearted nuns boosted my strength and uplifted my spirit to over come the worries. and anxities I felt about what will happen to me throughout the surgery as I am the breadwinner of my family. With God's grace, my surgery was successful and there were no complications.

I am, Always, and will be forever grateful to the management of Holy Family Welfare Hospital for their kindness, hospitality, and continuous assistance, I thank the Lord the he always gives us instruments of his love thru His faithful people. May the Lord God bestow more of his blessings to the Holy Family Welfare Hospital directors, management, its doctors and staff, and benefactors so that they may continue to extend their hands to the needy without expecting much in return.

Thanks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o God be the Glory, Honor, and Praise !

Presciosa Fernandez
migrant worker from the PHILIPPINES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신학생_ **손민국(비오)**

지난 6월 즈음,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었을 때 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방문상담을 하기 위해 이용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누구도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는데 마지막 가는 길도 역시 혼자였습니다. 사인은 고독사였고,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봉사지는 호스피스 계열로 가겠다는 생각이었으며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성가복지병원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9월부터 약 4개월간 성가복지병원에서의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가복지병원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고, 입원 병동만이 아니라 외래진료, 무료 밥집 등 생각보다 다양하게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화요일은 무료 밥집, 수요일은 입원 병동, 목요일은 외래진료 환자 안내 그리고 금요일은 청소 봉사를 하였습니다.

무료 밥집을 이용하는 대부분은 노숙인들이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적게는 외국인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300명가량의 이용자가 다녀갔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중단했다가 작년 9월에 다시 문을 연 초반에는 한 달에 100명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소문이 나고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세 자릿수(200명) 이상이 다녀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분은 매운 걸 못 드셔서 김치 대신 백김치를 드려야 하고, 추운 날씨에도 찬물을 드시는 분이 계시며, 또 어떤 분은 이가 약하기 때문에 잘게 잘라서 음식을 드려야 하는 등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는 재미와 그들이 오셨을 때 반가움도 느꼈습니다. 이용하는 수가 점차 많아져서 정신은 없지만, 이들에겐 한 끼 든든히 식사할 수 있고,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잠시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는 생각에 안도감과 감사를 느낍니다. 식사를 마치고 불편한 몸을 힘겹게 일으키며 감사 인사를 빠지지 않고 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힘을 얻으면서 동시에 감사는 바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입원 병동은 예전에 세 개의 층을 사용할 정도로 규모가 제법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봉사하던 신학생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인 2021년도에 병원 재단장 공사를 하면서 입원 병동 규모를 줄였기에 그만큼 환자 수도 줄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보면 환자 이름 옆에 II(내과), GS(외과), 그리고 HP(호스피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중증 환자들이었고, 거동이 어려운 건 물론이고 몸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마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체위변경을 해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드립니다. 입으로 식사를 못하는 환자는 코에 삽입된 엘튜브(L-tube)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환자들의 죽음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오전 체위변경 때에도 상태가 괜찮았던 할머님이 점심시간 즈음에 미동이 없어 확인해 보니 선종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격하였는데 그분의 피부는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병원이라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기에 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곳이 병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신 바짝 차려야 하고, 제일 긴장했던 곳이었습니

다. 또한, 죽음 앞에서 누구나 똑같다는 것을, 죽음 앞에 예외가 없음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1층 안내실 봉사는 단순히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배가 오면 받아서 수취인에게 알리거나 전달해 주고, 주차장 이용자가 있으면 가서 문을 열어주고,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외래 환자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전화문의도 받아야 하고…. 생각보다 일이 많아서 제일 분주했던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환자들이 있어 적응하는 마음도 필요했습니다. 제가 봉사했던 목요일에는 외래 환자가 적은 편이었는데 진짜는 토요일이라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외래진료 오시는 이들의 대부분이 평일에 일하기 때문에 쉬는 토요일에 병원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섬세함과 기억력을 요구하는 점에서 적응하는 데 애를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함께해 주신 기사님이 많은 일을 알려주어 감사하고 든든했습니다.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정신없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었던 수녀님과 직원, 봉사자, 환자와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저분이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씀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관한 관심을 좀 더 가지게 되었고, 편협했던 생각들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적응하고 해내진 못했지만,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구체적으로 마주할 수 있게 해준 성가복지병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느낌과 체험을 절대 잊지 않고 꼭 이웃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작은 사랑과 관심

신학생_ **강상훈(토마스 아퀴나스)**

5개월 동안의 실습, 두꺼운 옷을 입었던 한겨울에 저는 성가복지병원으로 실습을 오게 되었고 어느덧 반소매를 입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무료 밥집, 병동, 안내 등 여러 곳에서 실습을 하였고, 많은 환자와 수녀님 그리고 직원과 봉사자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만남과 함께 저는 주어진 일을 하면서 많이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여러 일을 하면서 적응을 하던 중에 병동에 계신 한 환자의 재활 운동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비로 인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재활 치료를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배운 재활 운동을 저와 따로 30분씩 매일 하게 되었습니다. 재활 운동을 한 지 1~2개월이 지나면서 침상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보조 기구를 이용하며 조금씩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퇴원할 때에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아진 모습으로 퇴원하는 환자를 보며 뿌듯하기도 했으나 한편

으로 아쉽기도 했습니다. 매일 주어진 30분 동안 침상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거나 걷기 운동을 하였는데 환자가 운동하지 않으려 할 때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심적으로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힘을 내어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아셨는지 운동이 끝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고, 저 역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때문에 퇴원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함께 아쉬움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환자와의 일화는 많은 일 중에서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저에게 큰 일깨움을 주었던 체험이었습니다. 작은 사랑과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감사함으로 느껴지고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또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을 하였고, 친절하게 환자들에게 다가가려 했던 것이 큰 깨달음이라는 선물로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따금 힘들고 지치기도 하였지만, 성가복지병원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큰 힘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무료 밥집에서 오가며 인사해 주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병원 안내실에서 만나면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해주시는 환자들, 부족한 저의 모습에도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는 수녀님들과 직원들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 곧 다른 이들과 함께하고 나누고자 했던 모습을 이곳에서 보고 배웠기에 앞으로 제가 걸어가는 길에 큰 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실습을 마치고 이곳을 떠나지만, 기도 안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기쁨

그 분께서는 너를 이끄시어
어둠에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 집회 7, 26 -

거룩한 주님의 종, 나(잔 다르크)의 삶

'전투에서는 언제나 선봉이었고, 군대가 안전하게 퇴각해야 할 때에는 언제나 맨 마지막에 후퇴했다.'
- 네테의 전언

외래간호 봉사_ **이용희(잔 다르크)**

돌이켜보면 꽃처럼 아름다운 20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간호대학에 입학만 하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나이팅게일'과 같은 세상의 빛이 되는 사람이 되는 줄로 착각할 정도로 철이 없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간호대학 입학 이후 설렘 속에 첫 수업이 시작됐고, 강의실에 들어가니 수녀님이 앉아 있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설렘도 잠깐 너무나도 빡빡한 강의 일정과 들어도 알 수 없는 의학용어들을 접하면서 "과연 내가 끝까지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어느덧 1학년 2학기가 끝나갈 즈음에 마르틴 수녀님과 함께 조별 과제를 진행하게 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학교생활에 대한 막연한 고충부터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 학생이 가진 고민을 털어놓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녀님과 관계를 맺으며 천주교라는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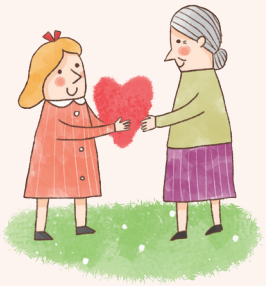
졸업과 함께 병원에 취업하여 바쁘고 힘든 신입 간호사 생활 속에서도 가끔 동기들과 수녀님들을 만나 친교를 나누는 일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수녀님이 성가복지병원 봉사 활동을 함께 해보자고 권유하여 근무가 없는 주말, 하루 중 몇 시간에 불과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과 간호사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도 병원이고, 주말에 봉사를 위해 가는 곳도 병원이지만 똑같이 '병원'이라고 부르기엔 서로 너무나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입원 환자 식사 도우미와 청결(세수, 양치질, 환의 교체 등)을 위한 봉사였습니다. 일반 병원이라면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면서 해주는 일이지만 이곳 환자들은 안타깝게도 돌봐줄 보호자나 가족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라 꼭 필요한 일이었고 수녀님의 편안한 인도로 제가 맡은 소임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병동, 공급실, 외래 봉사를 하다가 제가 근무하던 병원이 바뀌게 되면서 주말에도 근무할 수밖에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20대 성가복지병원 봉사의 소임은 더 이상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정신없이 제 본업에만 충실하며 주니어 간호사를 벗어나 시니어 간호사를 향해 성장해서 갔고, 어느덧 제가 곧 간호사이고, 간호사가 곧 저인 것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수술실에서 18년 차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40대의 나이가 되었고, 힘겨운 코로나19를 버텨내며 하루하루 긴장 속에 병원 생활을 하던 저에게 소위 소진(Burn out)과 함께

공황장애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직업을 가진 제가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탓에 이제 간호사가 아닌 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했는데, 문득 20대의 순수한 마음으로 즐겁게 봉사하면서 스스로 간호사에 대한 자부심도 느꼈던 시절, 그리고 함께했던 수녀님과 성가복지병원이 더욱 그리웠습니다.

1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성가복지병원, 만나고 싶었던 수녀님과 뜻깊은 재회를 하고 봉사 활동도 다시 시작한 병원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병원 입구부터 줄지어 서 있기도 했고, 배고픔과 추위에 갈 곳 없는 행려자들이 진을 치고 있던 병원 입구 계단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했습니다. 현재 진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드문드문 무의무탁자와 영세민들이었습니다. 봉사자들도 줄어들고, 입원실도 많이 줄었고, 5층에는 아늑한 북 카페도 생겼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성가복지병원도 나름의 변화를 겪으며 새 단장을 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스며든 사람을 살리는 향기는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곳을 찾는 이들은 국적, 인종, 경제력에 차별을 받지 않고, 누구든 아픈 몸을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 사람이 더 나은 병원에서 진료받겠다고 쇼핑하듯 병원에 다니는 세상 속에서 여기가 아니면 진료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국적자라서, 가난하고 소외되어 질병으로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또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환자들을 수녀님들과 의료진들은 아무런 차별 없이 따뜻하게 맞이하며 아픈 곳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종종 젊은 외국인 근로자 환자들은 처음에는 수줍은 듯 방문합니다. 한국말도 영어도 서툰 환자들은 핸드폰을 꺼내어 번역기를 돌려가며 의료진과 소통하려 애를 씁니다. 그들도 고마움을 느끼는지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서로 웃음만으로도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봉사하며 늘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누구든 다 똑같은 환자이고, 누구든 아프면 진료하고 치료해 주는 것이 내 소임이다. 환자들이 다음에도 마음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자."입니다.

20대에 시작된 인연으로 긴 세월 동안 상처 입었던 저를 오히려 치료해 준 곳, 수녀님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들의 미소가 해맑고, 의료진들 모두의 마음이 따뜻한 곳…. 이런 곳에서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도 고마운 분들의 후원과 도움으로 훌륭한 의료진들이 의료봉사를 해 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 계속될 수 있고, 더 많은 환자의 손길을 잡아줄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도움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특별한 나눔 이야기

하나! '천사 남매'의 용돈기부

지난 1월 12일 영훈초등학교에 다니는 백채원, 백승유 남매가
돼지 저금통에 모은 용돈을 기부하기 위해
성가복지병원 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주었답니다.^^
'천사 남매'의 선한 나눔과 예쁜 마음이
성가복지병원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둘! 선물이 특별한 나눔으로~

후원자님이 선물로 받은
상품권을 간직해 두었다가
성가복지병원이 생각나서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예쁜 봉투에 담아 우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매일의 감동과 사랑 나눔 속에서
성가복지병원은
희망의 씨앗을 꽃피웁니다.

셋! 독주회 공연티켓 수익금 기부

첼리스트 안준영님이
독주회 공연 티켓 수익금을
기부해 주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두 시간을 걸려
성가복지병원 후원회를 방문한
그 귀한 마음과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2월 28일_ 서상범 티토 주교 후원방문

4월 10일_ 전국여성법무사회 쌀 기증

5월 12일_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쌀 기증

10월 26일_ 김종길 후원자 풀무원 식품 후원

11월 29일_ 가톨릭대학교 3학년 모금 전달

12월 8일_ 서울남서로타리클럽 후원방문

12월 13일_ 성북구 야사회 기부금 전달식

12월 13일_ 서교상사 기부금 전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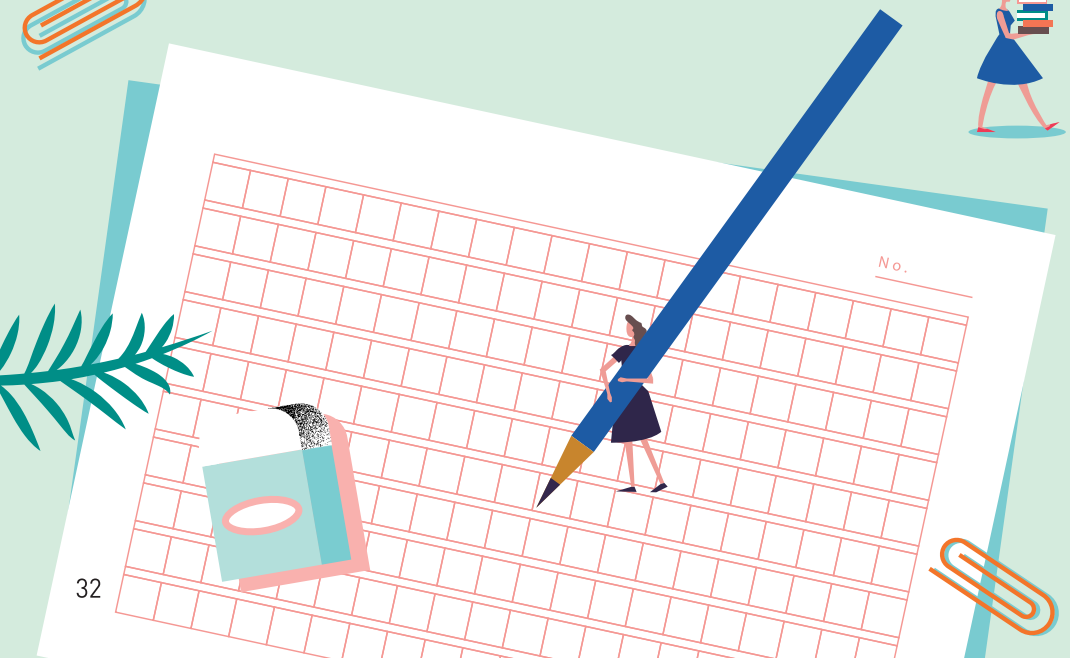
성가복지병원의 추억이 담긴

한 장의 사진과 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형 식 사진 1점과 사연, 시, 수필
분 량 A4 1장 이내(글자 크기 10포인트)
이메일 bobinhhuwon502@hanmail.net
우 편 02733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91(하월곡동)
성가복지병원 후원회

• 연락처 또는 E-mail 주소를 함께 보내주세요.
•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 에페 2,10 –

“고맙습니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목욕봉사자_ **최찬식(요셉)**

주일 아침, 가난한 이들의 안식처인 성가복지병원 5층 자원봉사자센터에 도착한다. 자원봉사자 담당 수녀님과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목욕 봉사는 어느덧 자동으로 진행된다. 간편 복장 준비를 마치고 시작 기도로써 오늘의 봉사 시간을 주님께서 사랑과 평화로이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며 목욕실로 향한다.

우리를 반겨주는 간호사 선생님들, 오늘은 어떤 환자들과 함께할까 기대하며 목욕 준비를 한다. 물 온도 맞추기, 비누, 면도기, 목욕 수건을 준비하고 환자분의 몸을 정성껏 씻겨드리며 마음으로 함께 해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의 손을 통하여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써 주신다는 기쁨은 물론이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하는 시간이 됨에 감사드린다.

노환으로 임종을 앞두고 야윈 몸으로 의식이 없는 분, 암 수술로 속살이 드러나 고통 중에 있는 분, 온몸이 노랗게 부은 피부로 희미한 의식 속에 있는 분, 욕창으로 허리의 뼈가 하얗게 보일 정도로 파여 등살이 없으신 분, 몸에 이어진 보조관으로 도움을 받으시며 투병 중인 분…. 누구나 거쳐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미래라는 생각에 숙연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흐트러진 생명의 처절한 상처를 대하며 오히려 내가 오그라지듯 안타까운 고통을 느낄 때, 주님께 나의 소심함에서 오는 아픔을,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희석해 주십사고 화살기도를 바친다.

코로나19로 봉사자의 활동이 허락되지 않는 기간도 있었고, 그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성가복지병원의 운영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분들의 불편함과 병동의 어려움이 상상되면서 환자들을 편안하고 개운하게 씻겨드리고 싶은 우리 마음은 더욱 생기 있게 움직인다.

대부분의 환자가 의사 표현도 못 하고 누워 있는데 간혹 어렵게 말씀을 하는 분, 물로 씻어지는 시원함을 느끼며 병실로 가는 중에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말에 우리도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빠른 쾌유와 편안하기를 기도해 드린다.

우리들의 손길이 너무 전문가 같았는지 목욕 봉사를 받던 한 형제님은 “여기 서비스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신다. 아마도 직업인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순간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미소 지으며 우리는 천주교 신자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신자라고 대답했다. 아마도 그분 마음속에 아직은 세상이 따스하다는 것을 맛보지 않았을까?

언젠가 간호사 선생님이 침상 목욕을 손수 해주시며 “환자의 몸을 구석구석 거품 수건과 물수건으로 아기 몸 씻기듯 하면 됩니다.”라고 하며 보여준 정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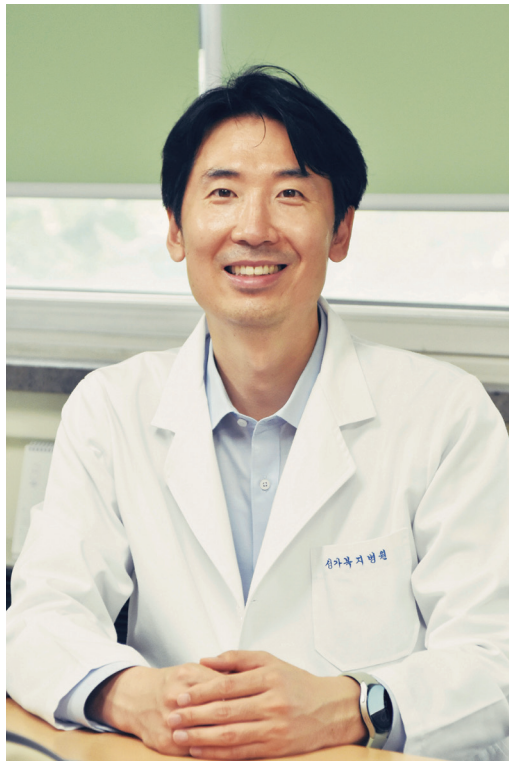
러운 손길이 새롭게 느껴졌고, 보살핌의 지혜를 배우고 따라 하는 배움의 마음도 갖게 하였다.

수증기 가득한 목욕실과 땀에 젖은 몸을 씻고 옷을 정리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사랑의 실천으로 봉사를 했다는 보람과 뿌듯함으로 우리의 생기를 더욱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이 되었다.

세상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 주시는 주님 은총의 순간들,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주님과 수많은 은총의 시간 중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가복지병원의 목욕 봉사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충만해지는 오늘이 되게 해주심에 "저희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다. 늦게 알아차린 우리 마음의 그릇 안에 기도와 봉사에서 오는 신앙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길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께 전구를 청한다.

미숙했던 자아도 함께

외래진료 봉사(정신건강의학과)_ **이승훈**



성가복지병원과 인연을 맺은 지 15년이 되어간다. 처음 병원을 나오게 된 계기는 다분히 계산적이었다. 가정의학 전문의가 되고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문과 행정 일이 주 업무인지라 환자를 진료하는 일은 할 수가 없었다. 환자 진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배운 지식을 금방 잊을 것 같아 불안하였는데 본당 신부님에게 진료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문의를 한 것이 성가복지병원 진료의 첫 시작이었다.

성가복지병원은 그동안 일해왔던 대학병원 환경과 너무나도 달랐다. 그건 겉으로 보기에 물질적으로 많은 부족함을 갖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병원 특유의 차가움, 다른 직역 간의 단절감, 환자에 대한 계산적 친절이 없었다. 여기서는 의사가 오더를 내리고 간호사와 다른 직군들이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서로에 대해 동등한 동료로서 도움을 주고받고 이해받으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따뜻한 연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이러한 따스함에 취한 채 봉사자로 1

년간을 해왔을 때 병원장 수녀님으로부터 정식으로 병원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아무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내원하는 환자분들은 별로 해드린 것이 없는데도 크게 감사를 표할 때가 많았으며 그럴 때는 그분들의 순수함에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나왔다. 하지만 그분들은 가진 것도 의지할 곳도 없는 분들이었기에 그 고통을 달래줄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간이나 췌장이 좋지 않아 치료를 해드려도 알코올을 끊지 못해 금방 병이 악화하여 다시 내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꼭 시지푸스의 돌을 올리는 기분이었다. "다시 안 좋아질 분들을 치료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으로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수녀님, 직원들과의 연결감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격려로 다가왔다. 아침에 출근하여 병원에서 미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연도를 바친 뒤 진료실에 앉으면 어느덧 새로운 기운과 평화가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 수련을 마치고 정신과 전문의로 진료 봉사를 나오고 있는데, 이곳 환자들의 소탈함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모습, 수녀님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헌신, 직원들과의 일을 넘어선 동료애는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나에게 변치 않는 온기를 전하는 보물이 되어있다.

그동안 병원의 외부와 내부도 더욱 깨끗해지고 환자분들도 노숙자, 알코올 의존 환자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내원하면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원내에 흐르는 친숙함과 편안함은 그대로이고 나 역시 오래된 편한 의자에 앉은 듯한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보게 된다.

뒤돌아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성가복지병원과 함께 해온 15년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단순히 가난하고, 낮은 이들만을 위한 진료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미숙했던 자아도 함께 치유를 받는 과정이었다는 은총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스도 사랑의 여정
무료진료 33년

33 years Journey of Love :
Providing free care.

"
성가복지병원
Holy Family Welfare Hospital
...

성가복지병원 33주년 미사 강론

임경명 임마누엘 신부(파리외방전교회)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는 다같이 이 미사를 기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수녀님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직원분들, 그리고 봉사자, 후원자들과 다 같이 노력하면서 이 병원이 사회의 약자와 가난한 이들, 소외된 사람들의 병원이 되었고, 그들의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이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33년 동안 여러분들은 병원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공생활 동안 환자들을 많이 만나셨는데, 그들의 병을 낫게 해 주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가복지병원은 예수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가복지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쁜 일입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존재 이유와 근본정신은 희생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든 예배든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규범과 제도에 사람이 자유의 숨결을 넣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이나 제도의 자리는 인간 위가 아니라 그 아래입니다. 그 근본정신인 사랑을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채워 남을 지배하며,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바리사이처럼 이웃에게 대신 의무를 강요하고 속박으로 내몰아선 안되겠습니다. 법 준수나 정해진 의무의 충족이 아니라 사랑을 살아가는 우리인 까닭이지요.

오늘도 율법보다 사랑이 우선이고 자비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임을 기억하며 서로의 영혼 구원과 주님 보시기에 좋은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이 되도록 헌신하는 우리가 되도록 힘썼으면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가복지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이며, 이 병원의 모든 환자들의 존엄성입니다. 계속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노력합시다.

성가복지병원 개원 33주년을 맞아
5년, 10년, 20년 근속상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강생(降生)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주신
직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5년 근속상

01

Work Anniversary

이수진(피아체) 수녀_ 후원회

종신서약을 하고 성가복지병원으로 새로운 부르심을 받아 지내온 5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게 된 다양한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을 통해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02

Work Anniversary

박금희(에제키엘) 수녀_ 약국

제가 수도자이면서 약무직을 하게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무의무탁한 이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여 한 가족을 이루고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운영하는 성가복지병원의 대상자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하심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저뿐만 아니라 성가복지병원의 직원, 후원자, 봉사자들의 고마우신 마음들이 하느님의 자비로움 안에서 성가복지병원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03

Work Anniversary

김영주(글라라)_ 병동

이 병원에서 일하며 돌본 환자들에게 가여움, 어리석음, 안타까움, 슬픔 여러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주어진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봉사하는 수녀님들께 존경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자고 제 마음도 다져보겠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04

Work Anniversary

장경란_ 병동

엊그제 출근한 것 같은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의 안녕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도 즐거움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축하와 함께 꽃다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10년 근속상

01

Work Anniversary

박종희(젬마)_ 영양과

성가복지병원의 가족으로 10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식사 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를 보내는 중 꽤 설레고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병원 가족들이 설렘과 기다림을 맛있는 식사를 하는 즐거움으로 만들어 가는 데에 제가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매일 감사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식사 시간이 즐거울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은 늘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시기에 따뜻한 일터이자 감사함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수녀님, 직원분들, 봉사자, 후원자를 비롯한 모든 병원 가족분들이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2

Work Anniversary

옥수득(요셉)_ 기사

성가복지병원의 뜰 안에 둥지를 튼지가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해낸 것 없는데도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받아온 사랑을 밑천 삼아서 병원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아늑함과 기쁨,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고자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03

Work Anniversary

한정희(데레사)_ 병동

복지병원과 함께한 세월의 한마디를 또 지나며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詩)가 떠오릅니다.

늙으신 아버지와 어린 누이와
사철 발벗은 아내가 있는,
나의 역사의 장소이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고향이 그러하듯
때로는 권태롭고
때로는 애증이 있으나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라는
어쩔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섭리와 인연에 감사하며
아직도 느리고 더디지만
복지병원의 남은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01

Work Anniversary

김수연(미키엘라)_ 영상의학과

20년 전 저희 집 현관문을 닫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성가복지병원으로 출근하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가장 힘들 때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 제2의 인생의 시작이 되었고, 생활 가장이 되면서 기쁨과 슬픔이 가득한 모든 나날이 저의 근속 20년의 소중한 나날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앞으로의 나날도 저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20년 근속상

02

Work Anniversary

박영숙(아가다)_ 병동

녹록지 않았던 근무 환경에서도, 함께 하면서 만났던 훌륭한 사람들 때문에 풍요로웠습니다. 정년까지 남은 36개월 동안,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무탈하시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입니다.
어느 날 밥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으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남의 입에 들어가는 밥을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고약한 일인가!".
지난 20년 동안 따뜻한 밥을 지어 주신 영양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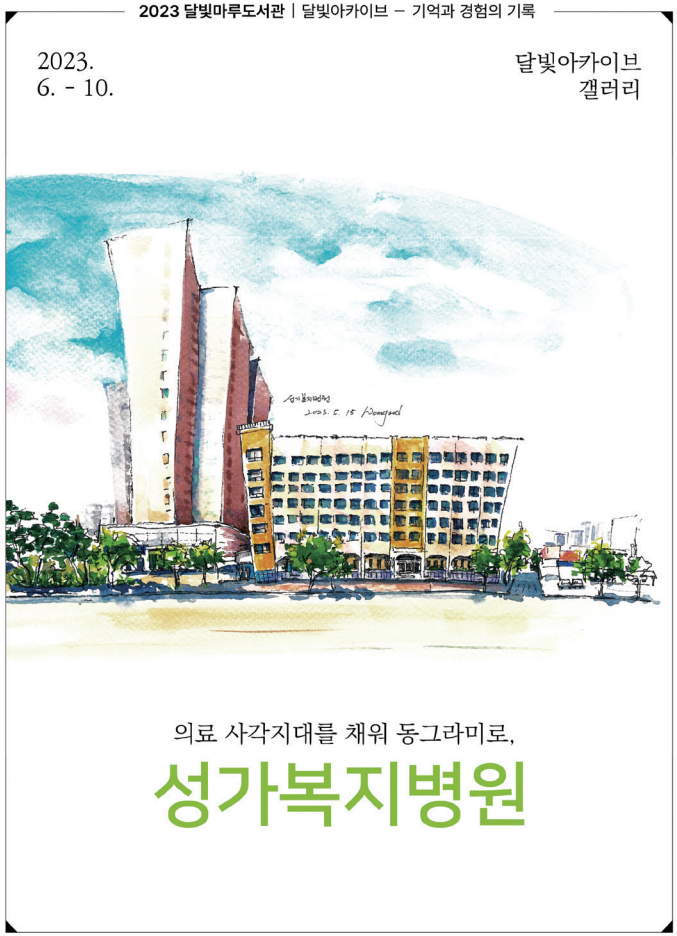
03

Work Anniversary

문선정(안젤라)_ 병동

2003년 3월 10일 제가 처음 성가복지병원 출근한 날입니다.
큰아이 작은 아이가 초등 2학년과 1학년, 작은아이 입학하고 닷새 동안 따라다니고 출근한 거지요. 20년 세월이 그 아이들을 어엿한 사회인으로 만든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간에 많은 일들, 속상하고 행복했던 일들이 너무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출근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밤 근무 끝나고 퇴근길 조차 흐뭇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직장이나 동료들에게 좀 더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채워 동그라미로, 성가복지병원』



2023 달빛마루도서관
<달빛 아카이브 : 기억과 경험의 기록>
첫 번째 이야기에 초대되었습니다.

달빛아카이브갤러리 전시 풍경

30년 이상 하월곡동에서 무료병원을 운영하며, 무료밥집과 자원순환 거점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는 '성가복지병원'이 달빛마루도서관 〈달빛아카이브갤러리〉에 전시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0일~10월 8일)

왼쪽부터 강주원 의무원장, 김 필리아 병원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성가복지병원이 개원 33주년을 맞이한 7월 23일

달빛아카이브 전시 오프닝에 초대되어 병원장 김 필리아 수녀와 강주원 의무원장의 인사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성가복지병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프닝에 이어서 '지구의 더위를 삽니다' 지역 축제에 참여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구지킴이 면자보 그림그리기 체험부스를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생태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성가복지병원을 초대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달빛마루도서관에 감사드립니다.

지역 생태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가는 '성가복지병원'

환경 활동가들과 쓰줍(: 쓰레기 줍기)

<연대>

쓰줍인

흡연자인권연대

성가소비녀회

일상공감

☑ 일반쓰레기 150L

☑ 재활용쓰레기 50L

☑ 담배꽁초 6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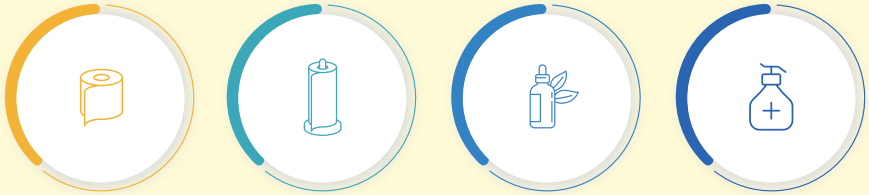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PROJECT'

매월 1·3째주 토요일(오후 13:30 ~15:00)

자원순환 회수 물품 :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뚜껑, 두유팩, 우유팩, 폐마스크

- 우유팩 / 두유팩 : 470kg ▶ 부림제지 방문수거(롤휴지 400개 교환)
- 투명 페트병 : 10자루 / 플라스틱 뚜껑 : 1자루 ▶ 아로마티카 방문수거
- 폐마스크 : 75kg ▶ 종로문화체육센터 전달

회수하여 전달된 자원순환 물품들은
소중한 자원이 되어 우리 생활 안에서 쓰여집니다.



01 우유팩 >> 재활용 휴지

02 두유팩 >> 키친타올

03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뚜껑 >> 화장품 용기

04 폐마스크 >> 새활용(Upcycling) 제품

자원순환 프로젝트 협력 단체

달빛마루도서관 / 숭곡중학교 / 봄봄(: 나를 돌봄 서로 돌봄)
성가소비녀회 / 길음성가어린이집
월곡동카페(꿈나눔카페 / 행복한북카페 / 카페몽클락 / 카페9.14 / 해피워크)
좋은나라유치원 / 월곡동성당_ 아누스 / 별별재미난교실

'착한 사마리아인 되기' 캠페인

성가복지병원 직원, 봉사자와 함께
천주교창조보전연대에서 주관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되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은 폐휴대폰, 배터리, 충전기를 박스에 담아
우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재활용 캠페인 수익금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설립과 환경난민 구호에 쓰입니다.

환경도 살리고, 지구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되기' 캠페인에 초대합니다.

병원 소식

2월 11일
세계 병자의 날 기념 '2023 소원나무 이벤트'

새해에 이루고 싶은
우리들의 소망을
소원나무에 담았습니다.

2023
소원나무 이벤트
경품 응모함에 참여하기~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2월 10일
경품 추첨하는 날 ^0^
두근두근~

2월 11일
세계 환자의 날을 기념하여
소원나무 이벤트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들에게 상품을 전달해 드렸어요.
소원나무에 담은 소망들도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입원병동
환자들에게
건강회복을 기원하며,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환자를 위한 성탄 공연'

올해도 영훈초등학교에서 성가복지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를 위한 성탄 공연'으로 기쁨과 행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공연 후에는 간식 나눔과 후원금 전달식으로 성탄 공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어린 꿈나무들의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몸짓이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Happy
Christmas

입원 환자를 위한 '병동미사'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김승현 베드로 신부의
주례로 입원 환자를 위한
'병동미사'가 봉헌됩니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치유와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배지 수여식

**"봉사자들의 손길과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가 새록새록 꽃 피었습니다."**

자원봉사자센터에서 지난 12월 9일
우수 자원봉사자 감사미사 봉헌과 배지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성가복지병원 강생(降生)의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봉사와 나눔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봉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골드 2,000시간

장영희 의무기록실

골드 1,000시간

장두규 1층 청소
이흥숙 무료밥집
이은성 안내실_ 불참

실버 500시간

김문자 입원병동목욕
김등희 입원병동목욕
김은희 외래간호(일반)
박지혜 의무기록실
서상미 외래간호
성인신 의무기록실
심전택 무료밥집
이기선 입원병동청소
이숙경 의무기록실
조교만 입원병동청소
천인욱 입원병동목욕

그린 200시간

김선희 무료밥집
김성희 무료밥집
김수진 의무기록실
김순옥 목욕안내
길상훈 입원병동청소
박선아 의무기록실
박종경 입원병동청소
박혜진 무료밥집
박흥기 입원병동목욕
배성문 무료밥집
배성삼 무료밥집
배숙휘 무료밥집
신애영 의무기록실
엄미선 무료밥집
윤태암 입원병동청소
이은정 무료밥집
전정임 목욕안내
전수환 무료밥집
정옥희 무료밥집
정은주 무료밥집
정혜원 진단검사실
조수아 약국
최찬식 입원병동목욕
허명선 외래간호

무료밥집

매주 화 · 목 · 토요일 무료밥집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든든한 점심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식사 전 기도하는 모습에서
평화와 감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무료밥집을 위해 사랑의 봉사 나눔으로
함께해 주시는 봉사자들과
낮은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월 평균 이용자 : 1,300명**

이 · 미용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쉼터를 오시면
무료 이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 토요일 휴무)

● **월 평균 이용자 : 84명**

무료 샤워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남여 무료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 토요일 휴무)

● **월 평균 이용자 : 68명**

2023 물품 후원자

쌀, 식재료 외

강정공소회장님
강주원
개성한우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고)이정연 보호자
고서형
길명숙
길음동성당
김미성
김선희
김승언
김용승
김은미
김인득
김종길
김종오
김진성
김효재
김혜자
나폴레옹
동부병원
동아ST(오흥준)
동일방앗간
들풀쉼터교회(김중곤 목사)
박경숙
박진성(서울우유협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변정윤
보라매병원
사랑터
삼천사(성운큰스님)
서로렌시아수녀
서울남서로타리클럽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서울치즈강북센터
성가소비녀회
성곡수산
성북구청
성북구청 여성단체연합회
소화데레사
송영태
송천동성당
신경자
양휘자
용하성 신부
우영개발
우종순(친절떡방)
유진유통
유호정
윤영애 환자 보호자
이금숙
이상미
이선희
이영석, 이선영
이윤정
이정희
이종섭
이창호
이혜란
장세문(마르꼬)
전국여성법무사회
전시자
전현숙
정릉4동 빈첸시오회
정원섭 환자 보호자
정화숙
조원은
(주)우방건설
중림동성당
중림축산
청년문간
채현신
프란치스꼬의 집
하상바오로의 집
한강성당
현대정육

의류

극동메디칼
김승언
김진성
나윤정
대합성의료기
망우동성당
보라매병원
삼보에프
성북구청 여성단체연합회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영훈초등학교
윤호영
이종옥
정종호
최서욱
태창산업
홍성남

생활 용품

고영경
권보경
김승언
김윤아
김진성
김진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시청
서판교성당
성북우체국
성북외국인센터
엔에취에이(NHA)
월곡2동주민센터
이종해
재경춘천여고(물망초)
(주)정명약품

의료용품 외

경동제약(주)
교정사목위원회
극동메디칼
김진성
김포외국인주민지원센터(송경애)
대합성의료기
디모테오꿈마을
바보의 나눔
송경애
유경동
최동주원장(양평 라이프치과)
최옥란
태창산업
SCL(재)서울의과학연구소

2023 신규 후원자 명단

(주)우방
KB 마음더하기
Verma Gunjan
강대용
곽현미
구경모
구길원
권보경
권혁렬
기우삼
김경호
김공님
김길심
김나현
김대현
김동영
김린현
김민
김민주
김민지
김민정
김복순
김서현
김선동
김성덕
김성임
김성현
김수남
김수현
김시현
김안숙
김영숙
김영자
김영희
김용만
김우찬
김유리
김정미
김정희
김종길
김지강
김지나
김진성
김진업
김하경
김혜경
김혜련
김희경
김희자
나동주
남영경
노원숙
도래울성당
동두천전수환
류현진
무등골
문아름
문주희
민병례
민지예
민형은
박귀환
박기훈
박동균
박명숙
박병수
박병학
박상범
박선희
박성모
박수운
박숙인
박숙희
박영섭
박우주
박이순
박재현
박현숙
백명선
변우진
서울치즈강북고객센터(박진성)
서학원
손지혜
손진영
송연주
송재영
신기호
신순분
신은주
신원재
안세환
안준영
양남례
양시관
양재섭
양정자
엄소연
엔에취에이(NHA)
오민욱
오성대
오유진
오태영
유미조
유민경
유전이
윤은숙
윤정희
이강율
이경미
이계철
이늬나
이다솔
이대로
이동현
이동화
이명희
이보나
이상호
이선민
이선아
이선연
이선옥
이성민
이수용
이순덕
이순영
이안나
이양재
이연경
이연순
이영희
이오순
이용규
이용우
이윤경
이윤정
이정린
이정애
이주경
이주선
이진순
이춘경마르타
이춘희
이화영
이환희
이효원
인천성모병원
임미정
임분도
임순애
자이온테크 주식회사
장다원
장동석
장민기
장주희
전길선
정경수
정관호
정무자
정순덕
정앵순
정연규
정영실
정영일
정우섭
정원정
정윤호
정은미
정은진
정은철
정진성(삼성에이플러스 주식회사)
정천홍
조명희
조미숙
조여진
조영신
조한이
주식회사 데님팩토리
중림동 약현성당
지소라
진복순
차동교
차아윤
차의혁
차재진
최길수
최돈원
최미환
최병길
최수미 디냐
최수진
최재국
최정아
최지영
최훈
탁윤희
폐의 김서윤과장
폐의 이은주교수
한은정
한종섭
허규
홍원배
황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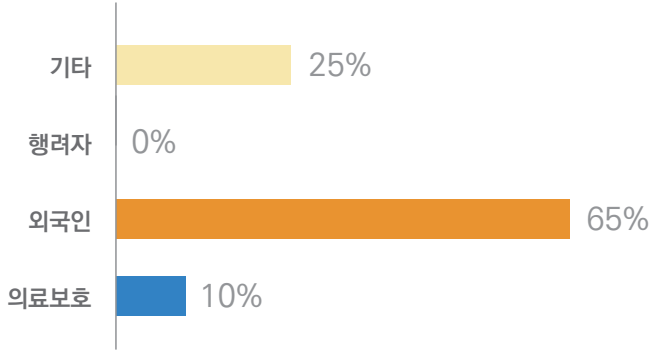
알려드립니다

2022년 환자 진료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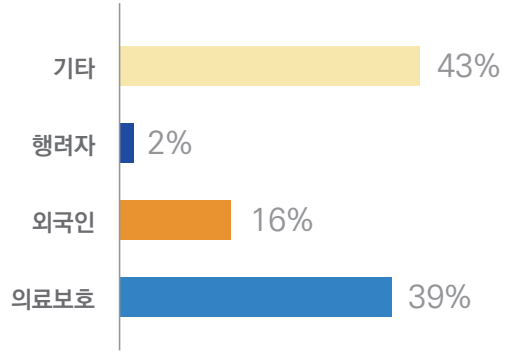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 기간	외래진료			입원 (연인원)	병동 사망자
	초진	재진	계		
2022년	976	24,198	25,174	4,713	33
1990~2022년	30,133	654,803	684,936	698,233	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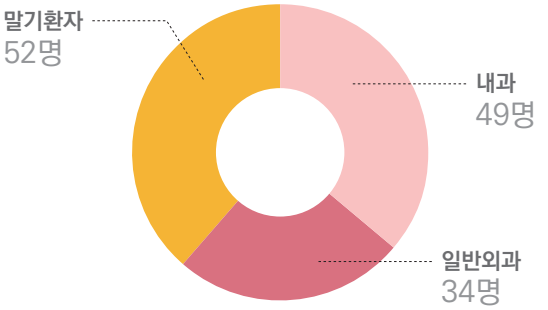
외래 신환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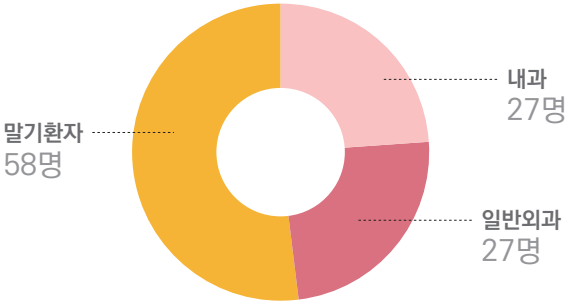
퇴원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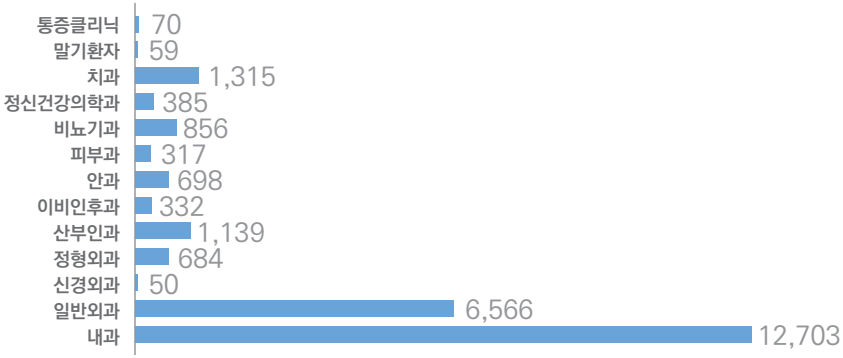
입원환자 과별 인원 통계



퇴원환자 과별 인원 통계



외래 환자 과별 인원 통계



알려드립니다

2022 후원금(물품)내역 및 사용결과보고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법인 보조(후원금)	4,276,120	사업비	645,502
기부 물품 (약품, 의료소모품, 급식재료, 의료기기, 소모품 외)	172,499	인건비	2,233,178
		관리운영비	372,638
		잡지출	1,321,597
기타 수입	177,036	재산유지조성비	52,740
계	4,625,655	계	4,625,655

후원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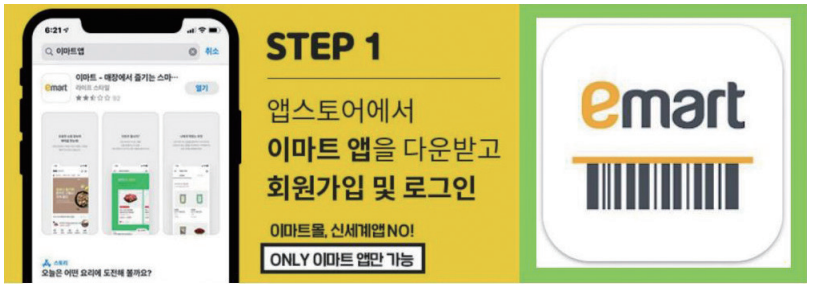
- **자동이체(CMS) :**
  신청서 작성 ▶ 금융결제원에 송신 ▶ 매월(5일, 15일, 25일) 이체하는 방법
- **지로 :** 지로 용지로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
- **인터넷 이용 시** : 지로번호 7529458
- **온라인 계좌이체 :** 후원자가 은행에 신청하여 후원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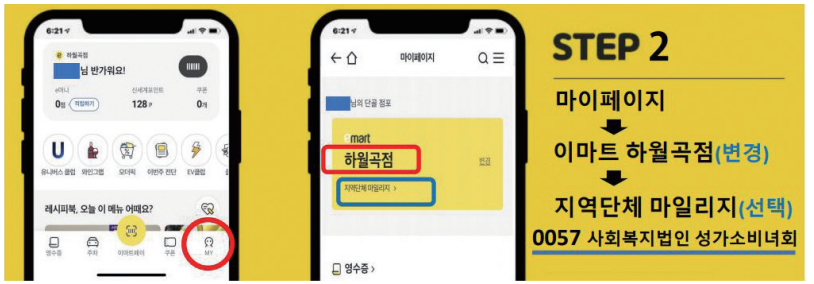
성가복지병원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17-25-0001-379
- 신한은행 140-000-247209
- 우 체 국 013474-01-000253
- 우리은행 048-068235-01-015
- 기업은행 006-000141-04-010
- 하나은행 289-810001-70404
- 신 협 01168-12-000238
- 제일은행 226-20-412973
- 농 협 051-01-184347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녀회

이마트 모바일앱 영수증으로 성가복지병원 마일리지 적립(기부)하기 ~





★ 개인정보강화로 종이 영수증은 받지 않습니다.
이마트 모바일 앱을 통해 성가복지병원 마일리지 적립(기부)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 영수증(소득공제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 우편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회원님과 명의나 주소가 변경되신 회원님들은 후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 전화 02-940-1501, 1502

E-mail bobinhuwon502@daum.net

주소 & 연락처 변경

홈페이지 게시판, E-mail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송되는 우편물이 많습니다.)**

후원회 E-mail bobinhuwon502@daum.net

봉사 신청 안내

홈페이지 봉사자 모집 게시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인들을 위한 미사 & 기도 봉헌

후원자, 봉사자를 위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미사 봉헌과 매일 아침 · 저녁기도 시간에 기도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병원 소식 보기

홈페이지 https://www.sgbokji.or.kr

인스타그램 성가복지병원

https://www.instagram.com/sgbokji_